현장과 시각

골프장은 늘어나는데

최재호
체육부 차장

"골프장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주말 부킹난은 해소되지 않고, 그린피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최근 기자에게 걸려온 40대 독자의 항의성 전화 내용이다.

기자는 그 독자에게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말에 골퍼들이 몰리고 있어 부킹난이 해소되지 않고, 올 해 골프장 관련 세금을 조정한다고 했으니 조만간 그린피 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평범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기자가 다녀온 일본의 골프장 실태를 살펴보면 독자의 의문은 당연하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회원제 18홀 골프장 주말 그린피가 한화로 12만원에 불과하고, 주중에는 5만~7만원이면 라운딩이 가능하다. 특히 전남권 골프장처럼 라운딩 중 초과인원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40분을 넘기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주중에는 골프장 내장객이 10팀을 넘지 않으니 '황제 골프' 수준이다.

이유는 공급 과잉이다. 일본에는 현재 2천400여 개의 골프장이 난립해 있어 대부분 골프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말 현재 전남지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승주(회원 27홀), 파인힐스(대중 9, 회원 18), 골드레이크(대중 18, 회원 18), 나주(대중9), 창평(대중 9), 광주(회원 27), 남광주(회원 18), 클럽900(회원 27), 아크로(대중 27), 함평다이너스티(회원 18) 등 15곳이다.

그리고 순천레이크힐스 등 회원제 4곳, 보성CC등 대중 7곳 등 모두 11곳의 골프장이 공사중이어서 조만간 오픈을 앞두고 있다. 또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담양 금성골프장 등 11개의 골프장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3년 내에 전남권 골프장은 모두 회원제·대중 등 3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전남에 골프장이 계속 늘어나는데 왜 주말 부킹난이 해소되지 않고, 그린피는 20만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세금 때문이다. 지방골프장의 그린피 중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2만원이 특소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으로 지급된다.

주창기 골프장연합회 부장은 "5만원 이상 세금 감면이 있어야 그린피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주말 부킹난도 문제다. 현재 전남권 골프장은 주중에는 고객이 없어 유치를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또 주말에도 골든타임인 오전 9시와 12시대에만 부킹이 몰려 골프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골프장이 늘어나는 것은 골퍼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처럼 그린피는 내리지 않고 골프장만 증설되면 이웃 일본처럼 멀지 않은 시간내에 '골프장 줄도산'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lion@kwangju.co.kr

中, 티베트 사원 공권력 투입 임박

라싸 시내 검문 장갑차 동원 가택수색

베이징서 첫 동조시위…일촉즉발 위기

중국 공안당국이 티베트 시위대에 최후통첩한 투항 시한이 끝나면서 시위대가 피신한 사원들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함에 따라 라싸 시내가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라싸 주민들은 18일 인터넷을 통해 무장경찰들이 운전하는 장갑차와 사병들이 탑승한 군용차들이 시내 주요 도로에 진을 치고 있어 마치 비상계엄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시위대가 대피한 시내 주요 사원에 대해서는 병력이 이중 삼중으로 포위하고 있으며 주변 도로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무장경찰이 신분증과 여행허가증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싸 시내 주요 사원에는 이번 유혈 폭력시위를 주도한 승려와 시위대가 대거 모여 있어 중국 당국이 공권력 투입을 단행할 경우 상당수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콩 방송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 1만여명이 라싸 시내에 진입했으며 완전 무장한 시위 진압경찰 1천여명이 장갑차의 지원을 받으며 가택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티베트 정부는 17일 오후 홍콩 방송 보도 직후 라싸 시내 호텔에 숨어있던 홍콩 기자 15명을 붙잡아 불법 취재보도를 이유로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인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로 내보냈다. 라싸에 거주하는 한족 주민들은 "우리가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있을 때 인민해방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되묻고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시짱의 안정과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달라이 라마 집단이 배후조종했다는 증거가 많다"면서 "이는 '독립을 추구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기치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어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의 독립을 포기하고 티베트와 대만이 중국과 불가분의 영토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티베트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중국 인근 티베트인 밀집지역은 물론 전 세계 중국 외교공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에서도 첫 동조시위가 발생했다.

목격자들은 18일 "티베트 학생 50~60명이 17일 오후 7시30분부터 베이징시 하이뎬구 중앙민족대학 국제교육대 건물 앞마당에서 촛불을 들고 연좌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곧바로 공안들이 무더기로 출동해 학생들을 포위하고 행인들과의 접촉을 차단했다"면서 "학생들은 3시간 만인 밤 11시께 전원 기숙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티베트 시위대 투항 시한으로 정한 17일 자정을 앞두고 라싸 시내 곳곳이 불에 타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52% 美 민주당원 지지도 힐러리 45%

당원을 포함한 민주당 지지 성향의 미국 유권자들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버락 오바마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NN방송은 여론조사기관인 ORC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의 대통령 후보로 52%가 오바마 후보를, 45%는 힐러리를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대의원 선출이 무효로 됐으나 치열한 경선전으로 인해 현안으로 대두한 플로리다와 미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인 63%가 새로운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19%는 기존에 실시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15%는 대의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쪽을 선택했다.선출직 대의원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경우 슈퍼대의원들의 투표 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쪽을, 46%는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당원대회)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쪽을 각각 선택해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슈퍼대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밝힌 반면 42%는 지지한다는 쪽을 택했다.

CNN의 여론조사 담당 책임자인 키팅 홀랜드는 "최근 출구조사에서 드러나는 추세가 전국의 민주당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오바마는 남성과 젊은 세대, 민주당 지지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힐러리는 여성과 장년층, 백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당원 등 유권자 1천19명을 상대로 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4.5%포인트다. /연합뉴스

베이징 초강력 황사

중국 베이징에서 18일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1천400㎍/㎥를 초과하는 초강력 황사가 발생, 시민들이 호흡 곤란을 겪는 등 하루종일 큰 피해를 겪었다. 특히 올해는 찬 기류와 강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우리 나라에까지 잦은 피해가 우려된다.

베이징환경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베이징 북부 바다링(八達嶺) 인근의 미세먼지 농도는 1천400㎍/㎥을 초과했으며 미세먼지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해 인근 베이징 북부에서는 오전 8시30분 기준으로 1천200㎍/㎥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티베트 사태 흠집 중국 전인대 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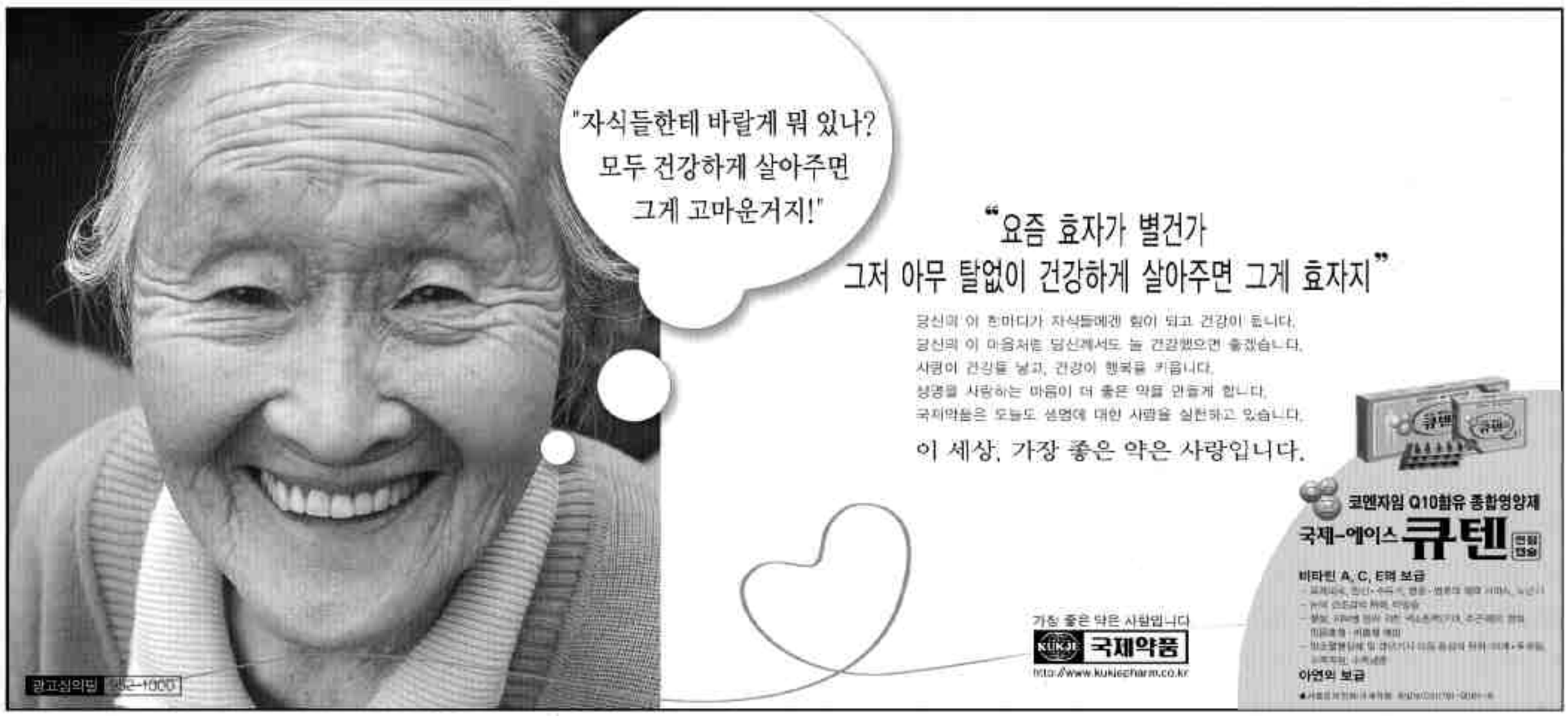
중국의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2기를 출범시키며 18일 오전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중국에서 양회의 하나로 불리는 최대의 정치행사인 전인대는 그러나 회기 중 발생한 티베트 라싸 유혈 사태라는 악재를 겪으면서 흠집이 난 채 끝이 났다.

◇**후진타오 집권 2기 출범**=후진타오 주석,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등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가 이번 전인대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후진타오 집권 2기는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정치·경제적 시련에 직면했다. 후 주석이 이끄는 정부는 라싸의 분리·독립을 위한 폭력 시위가 확산돼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지에 관해 시험대에 올랐다.

후진타오 집권 2기 출범 부처신설 정부 조직 개편

◇**차기 후계자 예약**=시진핑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 부주석에 선출되면서 5년후 국가주석 자리를 예약했다. 그러나 그는 차기 대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직에는 오르지 못했다. 시 부주석과의 경쟁에서 한 발짝 밀린 리커창 상무위원은 상무부총리에 올라 5년간 원자바오 총리를 보좌하면서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정부 조직개편**=이번 전인대를 통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무원(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리커창 부총리가 주도한 이번 개편은 공업정보부와 교통운수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주택도시지방건설부 등 5개 통합 부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대규모 인사개편**=이번 전인대를 통해 국무원 부총리 3명을 비롯해 국무위원 5명 전원이 교체되는 등 대규모 인사개편이 이뤄졌다. 리커창 상무부총리를 비롯해 왕치산, 장더장 부총리가 새로 선출됨에 따라 사망한 황쥐 상무부총리와 쩡페이옌 부총리 등 유임된 후이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됐다. /연합뉴스